2026-11-24 18:26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저수지 수질 악화 원인 논의… 장성호 수변길서 합동 환경정화

[김준혁]

민·관 협의체 참석자들,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합동 수질보전활동도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24일 장성호 관리사무소에서 2026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열어 저수지 수질 악화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장성호 저수지 수변길에서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24일 장성호 관리사무소에서 2026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열어 저수지 수질 악화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장성호 저수지 수변길에서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50개소의 분기별 수질 분석 결과 평균 총유기탄소는 지난해보다 평균 1.14mg/L 올랐다.

지역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8% 수준에 그치고 퇴적물이 늘어난 것이 오염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준설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수질 측정과 방제, 오염물 수거를 하는 수상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수질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장성지사는 지역 내 호소에도 이 로봇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질환경보전회는 지역사회와 저수지 수질관리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찾는 민·관 협의체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성호 저수지 수변길로 자리를 옮겨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합동 수질보전활동을 벌였다.

박영선 장성지사장은 "수질환경보전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가뭄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오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